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연변과제 연구진 회의 및 연변 지역 빈곤실태 파악

□ 과제명

- 재외동포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 연구 -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 출장기간

- 2019.09.17.(화) ~ 2019.09.22.(일)

□ 출장국가(도시)

- 중국(연변 조선족 자치주)

□ 출장자

- 조성은 연구위원
- 고혜진 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9/17(화)	중국(연변)	연변대학교	박광준(일본-붓교대학) 김수성 외(연변대학교)	연구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논의
9/18(수)	중국(연변)	효자양로원(연길시)	이정수(효자양로원 원장)	연변 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노인복지현황 관련 간담회
		연변자치주정부 연변노령산업협회	오장숙(연변조선족자치주) 김숙련(연변노령산업협회)	조선족 생활 및 빈곤실태 관련 자문
9/19(목)	중국(연변)	동정용진 사회구역	문성철(동정 노인협회장)	농촌지역 유수노인 실태 파악 및 지원시설 견학
		연변주노령공작위원회	최화(연변주노령공작위원회 처장)	노령공작위원회의 역할 및 주요 사업, 향후 과제 관련 간담회
9/20(금)	중국(연변)	연길시 관내 공원가두판사처(1개소), 사회구역(2개소)	(동행) 안화선(연변대학교)	도시지역 노인복지조직 견학 및 면담
		연변대학교 도서관	(동행) 안화선(연변대학교)	북한자료 열람
9/21(토)	중국(연변)	연변대학교 여성중심	이인자(연변대학교)	한조중 교류협력 사례 관련 간담회
9/22(일)	중국(연변) 귀국	연변대학교 (구) 조선한국 어학과 건물 4층 회의실	이화(연변대학교)	조선족 여성의 생활 실태 관련 간담회

2 출장 주요내용

①	연구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논의
일 시	2019.9.17. 화요일 17:00-19:00
장 소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회의실
참석자	박광준(일본붓교대학) 김수성, 심만근, 안명철, 안화선, 이성춘, 이인자, 최문향 (이상 연변대학교) 조성은, 고혜진(이상 KIHASA)
○ 구성 (연변지역 부빈정책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부: 중국 부빈정책과 연변자치주 (박광준, 이성춘, 안화선, 오영란)- 제2부: 연변지역의 부빈정책(안명철, 심만근, 이인자, 최문향)- 제3부: 부빈정책의 평가와 시사(김수성, 오세영)
○ 연구진행 상황 공유	<p>1) 중국 부빈정책과 연변자치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부빈정책의 개요와 배경 (박광준)<ul style="list-style-type: none">빈곤선 변화 및 빈곤현 지정, 탈피를 토대로 한 농촌 빈곤 추이 분석중국 부빈정책 시행 과정 및 재정, 조직 분석농촌 부빈정책 시행의 성패 결정요인 분석- 중국 부빈정책 결정의 메커니즘 (이성춘)<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국 부빈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좌우됨중국 부빈정책 결정의 메커니즘 고찰하여 모형을 이론화하는 작업 진행 중-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빈곤 실태와 최저생활보장제도 (안화선)<ul style="list-style-type: none">연변조선족 자치주 차원의 공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음연변 조선족 자치주 빈곤 실태 (빈곤 추위, 수급자 특징)연변 조선족 최저생활보장제도 평가(선정기준, 추진현황, 수급탈출)도문, 연길 인터뷰에 기초 최저생활보장제도 평가하고 문제점 도출할 계획
2) 연변지역의 부빈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변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징과 빈곤 (안명철)<ul style="list-style-type: none">노동유출보다 더 거시적인 차원, 연변 지역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중인구학적 특징, 경제생활, 사회보장제도 특징 검토- 연변지역 부빈사업 사례 (심만근)

전반적인 연반 부빈정책의 사례를 검토할지, 특정 마을(광*촌)을 지정해서 할지 고민 중 (추후 연구진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

광*촌은 산업, 문화, 당, 사회자원이 탈빈에 주요인이었음 (광*촌은 연변대학교에 할당된 지역으로 심만근 교수가 초기 부빈정책 시행 단계에서부터 관여)

탈빈 이후의 문제도 조명할 필요가 있음. 이미 연변지역에서도 많은 지역이 빈곤을 탈출 한 상황이기 때문. 이것이 향후 중국 정부 정책에의 시사를 논하는 것이 필요

- 고령자 빈곤과 부빈사업 (이인자)

연변 지역에서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족이 집거한 농촌지역과 조선족 집거지를 비교하고 있음

한족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에 집중하고자 하며, 경제적 차원 이외에, 심리,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여 평가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연변지역의 부빈정책 향후 발전방향 제시할 예정

- 유수아동 문제와 부빈사업 (최문향)

유수아동, 유수노인, 유수아내, 유수남편의 네 집단으로 구분해 검토

2011-2014년까지 직접 조사한 유수아동 약 800명, 유수노인 약 450명, 유수아내 약 300명, 유수남편 약 180명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작업 진행 중 집단별 특성, 빈곤,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등 분석할 예정

3) 부빈정책의 평가와 시사

- 부빈사업의 평가과정과 지표 (김수성)

연변지역 부빈정책에 대한 평가에 초점

정부 차원에서 100여개의 정책,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도 수행 중임

현행의 평가지표가 적절한지, 평가 과정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원고 제출 일정: 12월 10일 1차 제출, 이후 수정하여 12월 말 최종 제출
- 연말 혹은 2020년 연 초 학술세미나 개최 예정 (서울 혹은 세종)

②	연변 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노인복지현황 관련 간담회
일 시	2019.9.18.(수) 10:00-13:00
장 소	연변 효자양로원
참석자	박광준(일본붓교대학) 이정수, 황설매(이상 효자양로원) 조성은, 고혜진(이상 KIHASA)

○ 효자양로원 현황 (연길시 소재)

1층 문화시설 및 다과실	
효자양로원 전경	1인실

- 시설 현황 (5층 건물)

- | |
|--------------------------------|
| 1층 사무실, 문화시설(탁구장, 다과실) |
| 2층 호리대상자 생활 시설 |
| 3층 식당 및 자립 노인 생활시설 (주로 1, 2인실) |
| 4-5층 자립 노인 생활시설 (주로 1, 2인실) |

- 입소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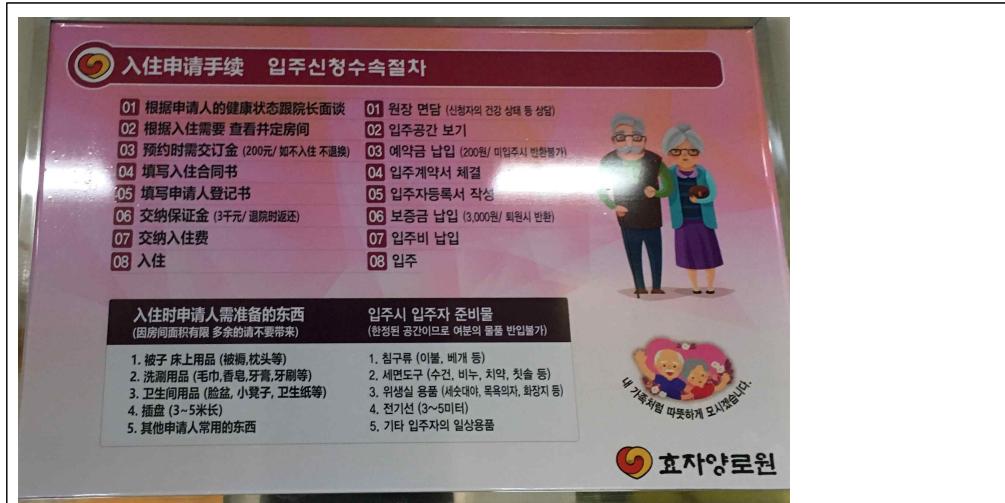
조선족 노인만 입소

자립 노인과 호리(요양대상) 노인 구분해 입소

현재 30명 노인 입소(호리 대상자 2명)

최대 62명까지 수용 가능

- 입소절차



- 지원 인력 현황

상주 인력 2인

* 국가 공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나, 민간기관에서는 자격 미소지자들도 노인 복지에 관여

** 대형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재정

입소자 자부담 및 국내외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운영

(효자양로원은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운영됨)

자부담금: 1인실(월 ₩1800-₩2200), 2인실(월 ₩1900) 5인실(월 ₩1200)

수급자, 퇴역군인은 비용부담 절감(시설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현재 효자양로원에는 무료 입소자 및 월 ₩1000의 자부담으로 시설 이용하는 노인들 있음

당국에서의 인가 이후 침상당 일정액을 특히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해야 하는데, 집행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때 농촌호구이거나 도시호구이거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름

- 규제

각종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있음 (전기, 난방 등)

③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관계자 면담 조선족 생활 실태 및 연변지역 빈곤실태 검토
일 시	2019.9.18.(수) 15:00-18:00
장 소	연변 국제반점
참석자	박광준(일본붓교대학) 오장숙(전 길림성 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 김숙련(연변조선족자치주 노령공작위원회 회장) 조성은, 고혜진(이상 KIHASA)
<p>○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50-60만 명의 조선족만이 연변 지역에 거주하여, 조선족이 전체 인구의 30% 수준으로 30년 전에 7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감소 - 개혁개방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조선족들의 해외 이주가 활발해짐 - 연변 지역 내에서 생활이 보장되는 고위직들은 연변지역에 많이 거주하나, 중간 이하 계층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이들의 해외 이주가 특히 많음 - 한국(80만 명), 영미권(30-40만 명), 일본(15만 명), 그 외 내중국으로 이주 일본으로의 이주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90년대 대량 이주 - 자치구이기 때문에 행정장관은 조선족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요즘은 중국 한족들도 주요 요직을 많이 차지하는 추세 - 연변지역의 조선족은 많은 수가 북한에서 이주한 이들이며, 남한에서 이주한 사람들 은 한반도 국경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것에 정착한 경향 	
<p>○ 조선족 생활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림성에서 한족이 주로 거주하는 돈화보다 조선족 밀집 지역의 경제수준이 낮은 편 - 연변에는 제조업체가 없어서 해외 이주가 조선족에게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선족이 아직까지 열등한 편은 아님 - 정치적인 부분에서 민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지되며, 공공 부문에 서는 민족간 형평을 맞추려는 노력이 원활한 편 예컨대, 공공시설에서 특정 민족만 종사하는 것은 금함 - 과거에는 다른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풍습도 사라 지고 있는 추세 - 젊은 세대들은 중국어를 문제없이 구사하고 중국 문화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음 - 농촌 지역의 조선족 유출 심각하여, 민족학교가 사라지는 추세이며, 연길시에는 조선 어로 교육하는 곳이 몇 곳 있지만, 이것도 줄어들고 있음 	

연길시 민족학교 수: 초등학교 7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개

조선족 중에서도 중국 한족 학교로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 조선족들은 식당 등의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며, 건설, 청소, 전기시설 설비 등에는 거의 종사하지 않음
- 연변 지역의 소득 수준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생활비가 급격하게 늘어 생활수준이 악화됨

이에 과거보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 다시 연변으로 돌아오려는 조선족들이 줄어들고 있음. 이들은 연변에서도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유수아동의 문제로 조선족과 한족 아동 간의 학력격차 문제가 심각해짐
- 고무적인 지점은, 과거에는 조선족이 다수여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크게 대두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조선족 비중이 줄어 과거보다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모임, 동호회가 생기는 추세라는 점임

○ 중국 농촌 빈곤 추이

- 빈곤선 변화: 1978년 연 100원 → 이후 차츰 향상되어, 1985년에는 식량 200kg, 206원 → 90년대 구매력 평가 활용한 빈곤선 설정 → 2000년 상대빈곤선 도입 (단 기준의 절대 빈곤선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음) → 2010년부터 통합 신빈곤선(빈곤선을 대폭 인상, 공식빈곤선으로 통합)

- 중국의 빈곤, 지역간 경제 격차의 요인

자연환경 요인, 선부론에 의한 특정 지역 중심 개발 정책, 다민족 국가

- 빈곤현: 1981년 농업부에서 지정하기 시작

중서부 지역에 집중(길림성 포함), 소수민족과 관련성 높음

* 지역 단위에서 빈곤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길림성 8개 지역 중 4개 지역은 국가 지정 빈곤 지역, 1개 지역은 길림성 지정 빈곤 지역 (작년을 기점으로 모두 탈피)

○ 중국 농촌 빈곤 해소에 기여한 부빈정책

- 농촌주민의 재정부담 경감정책: 각종 세금 인하 혹은 면세 및 폐지, 징수 방식 개편, 행정 비용 폐지, 세수가 감소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
- 농업보조정책 및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임시비축제도
- 사회보험 확충을 통한 소득증가와 지출감소: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시 및 포괄 범위 확대

④	농촌지역 유수노인 실태 파악 및 지원시설 견학
일 시	2019.9.19.(목) 10:00-12:00
장 소	용정 동정용진
참석자	박광준(일본붓교대학) 문성철 (이상 동정용진 노인협회장) 조성은, 고혜진(이상 KIHASA)

○ 동정용진 사회구역 현황

- 1층: 각종 공공업무 시설(사회보장 신청 등)
- 2층: 각종 노인 문화시설 및 강당
- 특히, 용정 지역 내 농촌에서는 조선족 노인들을 위한 사물놀이, 민족 무용, 가야금 등 조선 문화 관련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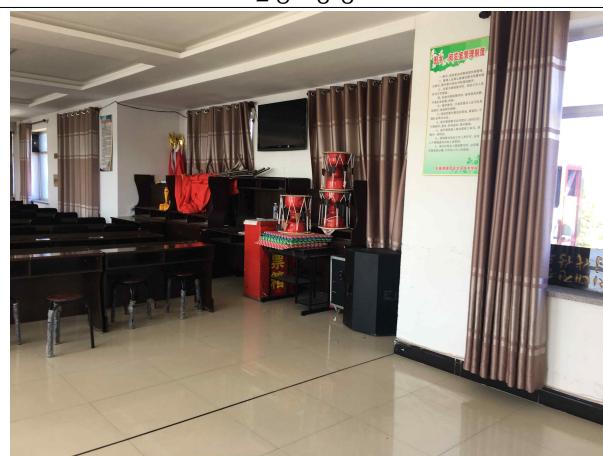
동정용진 편민 복무중심 전경



2층 강당



동정용진 편민 복무중심 역사



문화 프로그램 용 악기

○ 농촌지역의 유수가정 현황

- 조선족의 한국 유입이 늘어나면서, 인구의 절반이 유수가정
- 학생이 줄어들어서 현, 진 단위에서의 학교는 없고, 용정에서 셔틀버스 운행

○ 농촌 지역 노인 생활 현황

- 농촌 지역에서는 60% 이상이 노인인 경우도 많은

- 과거보다 양로원 입소에 대한 거부감 감소

민간 양로원의 경우 평균 월 3000원(건강 상태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음)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진 단위에 하나에 불과하며 주로 저 소득층에 한정

* 수급비로 양로원 경비 충당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

- 농촌의 생활 환경이 좋지 못해서 노인들은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남

○ 농촌 지역 수급자 현황

- 수급자들의 대다수가 장애인이거나 노인임

- 오보보장(의, 식, 주, 의료, 장제) 대상자 규모가 4% 수준이었는데 그 비중이 2% 수준으로 감소

* 빈곤선이 현재 3500원 수준(2019년 기준)으로 중국 인민 평균 월급의 10% 수준

- 수급액은 도시호인지 농민호인지, 그리고 농민인지 직장 퇴직자(사회구역)에 따라 다른데 사회구역은 400원 농민은 2-300원

- 만성질환자는 조금 더 보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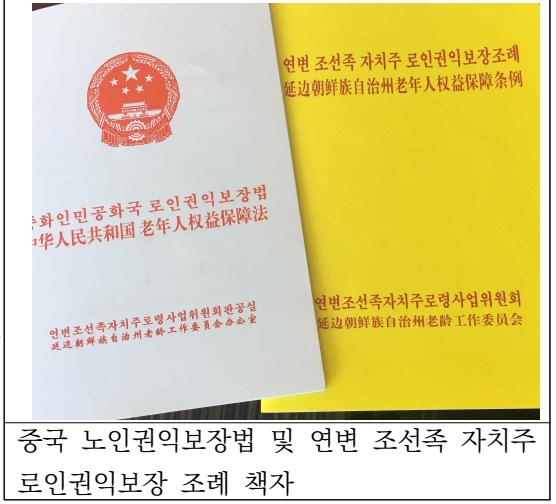
○ 중국의 빈곤정책 특징

-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감당하기는 어려워 성급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많이 하는 편

- 기업, 대학, 부유한 지자체를 빈곤현과 매칭하여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함
일정 기간 내에 빈곤현의 빈곤 수준을 낮추라고 주문하여, 각 조직들이 빈곤 감축을 위해 각종 투자를 하도록 지원

- 이공대진(빈곤호에 일자리를 줘서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나, 진 정부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음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시급 지급

- 용정 2018년 국가 지정 빈곤현에서 벗어남

⑤	노령공작위원회의 역할 및 주요 사업, 향후 과제 관련 간담회
일 시	2019.9.19.(목) 15:00-18:00
장 소	연변 국제반점
참석자	박광준(일본붓교대학) 최화 (연변족자치주 노령공작위원회) 조성은, 고혜진(이상 KIHASA)
<p>○ 노령공작위원회의 역할 (조례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사업 발전 및 노인권익보장사업 총괄 - 노령사업 발전계획 및 관련 정책 연구, 제정, 관련 부서 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내 33개의 부문에서의 각 노인 사업을 조율 - 노인 관련 법률 및 정책 선전, 노인권익보장 사업 조율, 추동 - 각 현시의 노령사업 지도 감독 - 노인 단체 규범화 건설 및 법에 따라 직무수행 지도 및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주 지위를 유지해야만 자체적인 복지욕구에 따른 조례 제정 가능 <p>*한국보다 자치주 조례의 법적 지위가 강함</p>	 <p>중국 노인권익보장법 및 연변 조선족 자치주 노인권익보장 조례 책자</p>
<p>○ 노령공작위원회 사업의 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빈곤퇴치 사업이 노령공작위원회 사업의 주요 초점 - 유수노인, 독거노인이 많고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의 빈곤 완화에 주력 - 독거노인에게 기초 의료보장에 더해 10% 수준의 추가 보장 제공 <p>○ 연변 조선족 자치주 노인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변 조선족 자치주 총 인구 220만 명 중 47만 명이 노인인구 (만 60세 이상의 공민 	 <p>빈곤퇴치 사업 현수막</p>

이 법적 기준에 의한 노인임)

- 시설 보호를 받는 노인은 4%에 불과
- 53명에서 68명 정도의 100세 이상 노인 인구이고, 100세 이상에게는 더 많은 재정 지원 (농촌에 대부분이 거주)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의보장법 제33조는 지방정부에서 만 8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상대로 고령자보조금 제도 수립을 권장하는데,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주의 로인권의보장조례 제35조에서 만 100세 이상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 및 대중교통 이용료와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 지방정부에서 침상당 절반 보조하도록 규정하나, 지방정부 재정이 충분하지는 않아서 집행이 잘 이뤄지지는 못함
- 매달 노인 인구 일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주로 시설 건설비 지원

*연변 조선족 자치주 로인권의보장조례 제20조 참고

- 각종 생활 용품 등을 지원하곤 함
- 북경이나 상해에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연변족 자치주정부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 기업의 참여도 많지 않아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여의치 않음

○ 노인협회의 역할

- 노인협회가 노인 복지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큼
- 특히, 연변이 모태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됨
 - * 조선족의 효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함
- 독거노인 지원 조직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대되었음
- 거가양로중심 등이 우수사례로 소개됨

⑥	도시지역 노인복지조직 견학 및 면담
일 시	2019.9.20.(금) 09:00-12:00
장 소	연길시 관내 공원가두판사처(1개소), 사회구역(2개소)
참석자	안화선(연변대학교) 조성은, 고혜진(이상 KIHASA)

○ 중국 노인복지사업 조직 체계

- 노령공작위원회 (공공) → 공원가두판사처 (공공) → 사회구역

공원가두판사처: 노령공작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공공조직으로, 양로보험,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과 노인 및 아동복지, 가족계획 그리고 행정 민원 등을 관리 감도하고 처리하는 공공행정 일선조직 (한국의 주민센터와 유사한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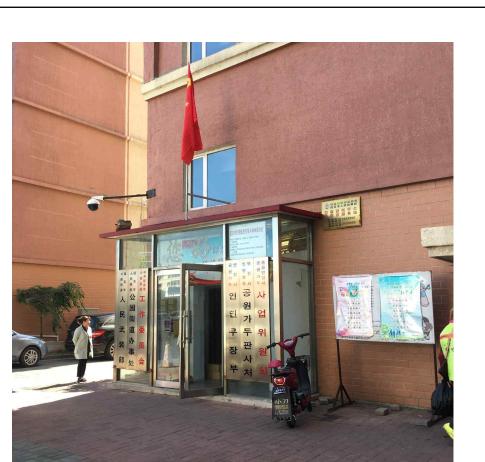
사회구역: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방정부마다 보조액의 수준이 다르며, 보조금액에 따라 정부 사업 수행 정도에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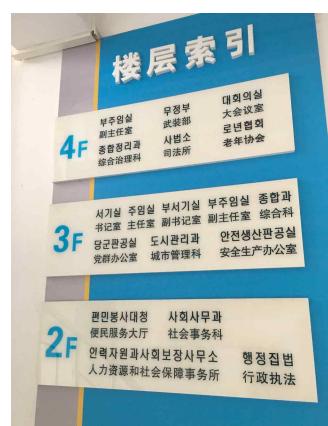
* 사회구역은 노란 건물 외벽에 붉은색 지붕을 특징으로 함

○ 연길시 노인복지사업 조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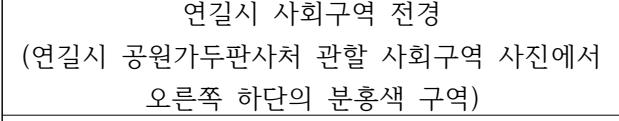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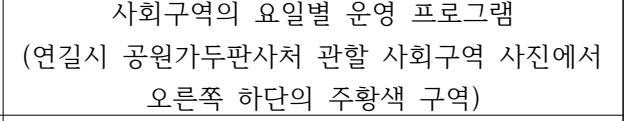
- 연길시에는 현재 7개의 공원가두판사처가 있으며, 70-80개의 사회구역 있음
한 개 공원가두판사처가 10 여 개 가량의 사회구역 관리
- 자치주의 사회구역은 90% 이상의 지방정부 보조로 운영되고 있음
- 사회구역마다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로 자원봉사 인력들에 의해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됨
- 행정 업무를 위한 상주 직원들이 2-3명 정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계약직임



연길시 공원가두판사처 전경



연길시 공원가두판사처 내부 구조

	
<p>연길시 공원가두판사처 관할 사회구역</p>	<p>공원가두판사처에서 처리하는 업무 안내자료</p>
	
<p>연길시 사회구역 전경</p> <p>(연길시 공원가두판사처 관할 사회구역 사진에서 오른쪽 하단의 분홍색 구역)</p>	<p>사회구역의 요일별 운영 프로그램</p> <p>(연길시 공원가두판사처 관할 사회구역 사진에서 오른쪽 하단의 주황색 구역)</p>
	
<p>사회구역 내 취업 정보 게시판</p> <p>(연길시 공원가두판사처 관할 사회구역 사진에서 오른쪽 하단의 분홍색 구역)</p>	<p>사회구역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모습</p> <p>(연길시 공원가두판사처 관할 사회구역 사진에서 오른쪽 하단의 주황색 구역)</p>

⑦	연변대학교 도서관 북한자료 열람
일 시	2019.9.20.(금) 14:00-17:00
장 소	연변대학교 도서관 7층
참석자	안화선(연변대학교) 조성은, 고혜진(이상 KIHASA)

- 연변대학교 도서관 조선도서 보유 현황
 -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도서관 7층 한국 및 조선도서 보유 중
 - 철학, 문학 관련 서적 다수 보유
 - 사회보장, 재정 관련 도서는 적은 편
 - 5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년감 자료 모두 보유
 - 비교적 최근의 북한 도서는 적은 편



연변대학교 도서관 전경

⑧	한조중 교류협력 사례 관련 간담회
일 시	2019.9.21.(토) 10:00-12:00
장 소	연변대학교 여성중심
참석자	이인자(연변대학교) 조성은, 고혜진(이상 KIHASA)

- 연변대학교 여성중심의 활동
 - 90년대 초 설립
 - 평생교육원을 통한 여성경제인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
 - 최근 연구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 각 단과대학의 여성 교수들을 중심으로 주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동북아 3국의 여성 교류협력
 - 학술교류를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연변대학교 여성중심은 3국 여성 학술교류의 중심이 되었음
- 3국 학술교류는 2000년 시작되어, 3차례 추진됨
- 두만강포럼을 통한 여성 학술교류는 2014년 시작되었고, 중간에 일부 공백기 후 2019년 재개

⑨	조선족 여성의 생활실태 관련 간담회
일 시	2019.9.22.(일) 11:00-14:00
장 소	연변대학교 (구) 조선·한국어학과 빌딩 4층
참석자	이화(연변대학교) 조성은, 고혜진(이상 KIHASA)
○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양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대 도시 여성의 취업률 1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아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제고되면서 남녀 가사분담률 및 가정 내 여성의 의사결정권 향상 - 1979년 개혁개방, 1998년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여성의 취업률 하락 비교적 최근까지도(2010년) 여성 실업률이 남성의 2배를 상회 	
○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경제지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여성의 약 47%가 취업 -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연길시 4대 시장 내 점포 경영인의 90% 이상이 조선족이며, 이 중 약 95% 이상이 여성 - 한국을 비롯한 각국으로의 이주 활발, 특히 이주가 여성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엄마가 부재한 조선족 가정이 다수 → 조선족 아동의 학력 저하 문제 등과 연결 	
○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여성의 가정 내 지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간 수입의 역전: 아내의 수입이 남편의 수입 상회 - 가족 내 다른 여성(조부모)에 의한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 - 부부관계의 주도권이 평등한 관계로 옮아가거나 아내에게도 전이 → 여성에게 내면화된 역할분담에 대한 책임감과 남성들의 낮은 인식변화, 사회 담론의 편파성으로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관습 지속 	